

LG화학, 소재사업 강화... 美서 솔루블 OLED 기술 인수

듀폰 '솔루블 OLED' 재료기술 인수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

첨단소재사업 중심 조직개편 단행
디스플레이 선도 LG그룹 보조맞춰

LG화학이 글로벌 화학기업인 듀폰(DuPont)으로부터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플랫폼인 '솔루블 OLED(용해성 유기발광다이오드)'의 재료기술을 인수한다.

2일 LG화학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신학철 부회장, 듀폰 마크 도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솔루블 OLED 재료기술 인수식'이 개최됐다. 인수 범위는 ▲듀폰의 솔루블 OLED 재료기술과 노하우 등 물질·공정 특히 540여건을 포함한 무형자산 ▲듀폰의 연구 및 생산설비를 포함한 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오른쪽)과 듀폰 마크 도일 부회장이 최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개최된 '솔루블 OLED 재료기술 인수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형자산 일체다.

LG화학은 또 OLED 등 첨단소재사

업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고자 투자를 이어가는 LG그룹과 보조를 맞춘 복안으로 풀이된다.

양사는 이번 인수를 통해 솔루블 OLED 재료 분야의 모든 핵심기술을 단번에 확보하게 됐다. 듀폰은 20년간 연구를 통해 기술난이도가 높은 발광층과 잉크젯 프린팅 소자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솔루블 OLED 디스플레이는 용액 형태의 재료를 잉크젯 프린팅 기술로 패널에 얹어 만드는 방식으로 기존 증착형 OLED에 비해 재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색재현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전세계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향후 5년내 솔루블 OLED 디스플레이 양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이번에 확보된 핵심 원천기술과 기존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솔루블 OLED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또 LG화학은 현재 침주에 보유하고 있는 소재사업 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향후 미국 설비 등을 들여올 예정이다.

LG화학은 2015년부터 솔루블 OLED 재료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OLED물질 내 정공과 전자를 주입하고 전달하는 공통층 부문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번 인수로 솔루블 OLED 재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철저한 준비로 최상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듀폰과 첨단 소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 CNS '지능형 CCTV', KISA 인증 획득

난이도 높은 쓰러짐 영역 인증

LG CNS가 지능형 영상분석솔루션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능형 CCTV 성능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LG CNS 지능형 영상분석솔루션은 CCTV에 포착된 사물 및 움직임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상행위를 감지해 알려줌으로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의 효율적 보안 관제를 가능케하는 솔루션이다.

KISA의 지능형 CCTV 성능 인증은 필수 항목인 침입·배회, 옵션 항목인 유기·방화·쓰러짐·싸움 중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해 90% 이상의 판독률을 기록할 경우 인증서를 발행한다.

LG CNS는 자체 개발한 딥러닝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옵션 항목 중 가



장 난이도가 높은 쓰러짐 영역을 선택해 인증을 획득했다.

LG CNS 지능형 영상분석솔루션을 탑재한 CCTV는 공장이나 연구소 등의 시설에 설치돼 ▲실시간 침입탐지 ▲영역 내 사람 수 확인 ▲안전도 착용여부 ▲쓰러짐, 달리기 등 사람의 다양한 행동과 차량이나 물류 제품 등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LG CNS는 LG계열사 제조공장 내에서 안전 CCTV 영상 분석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KISA 기술 인증을 통해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SK이노베이션, 中서 수산화리튬 대량 확보

텐치리튬퀴나나와 장기 계약
5년 6개월간 최대 5만톤 확보

SK이노베이션이 중국 최대 리튬생산 업체로부터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대량으로 확보하게 됐다.

2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리튬 생산업체 텐치리튬의 자회사 텐치리튬 퀴나나(TLK)는 SK이노베이션과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텐치리튬은 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공급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텐치리튬이 호주 퀴나나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화리튬 가운데 20~25%를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까지 공급받게 된다. 총 5년 6개월간 수산화리튬을 최대 5만톤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 생산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은 또한 TLK와 앞으로 2년간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실제 계약을 맺은 건 지난해 12월 중순"이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배터리 핵심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처를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텐치리튬은 세계 3위, 중국 1위 리튬 생산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계약은 한번 충전으로 500km 이

상 주행할 수 있는 '3세대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LG화학도 지난해 중국 '장시 간평리튬'과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다. LG화학은 이에 앞서 캐나다 '네마스카 리튬'과도 총 3만5000톤의 수산화리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배터리 원재료 및 소재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SKB, 제주스타렌탈과 커넥티드카 MOU

키오스크 단말·인프라 제공

SK브로드밴드는 제주스타렌탈과 클라우드키오스크 및 커넥티드카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MOU를 통해 ▲클라우드키오스크와 커넥티드카 사업용 단말 및 인프라 공급 ▲커넥티드카 사업 관련 응용 사업 공동 추진 ▲클라우드키오스크 기반 이벤트 등 대고객 콘텐츠 서비스 구축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제주스타렌탈이 관광, 교통, 음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쿠폰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쿠폰 구매와 출력 등을 위한 키오스크 부문을 담당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는 클라우드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맡는다.

또 SK브로드밴드는 렌터카에 차량



고영호 SK브로드밴드 성장전략이브장(왼쪽)과 장호 제주스타렌탈 대표가 클라우드키오스크 및 커넥티드카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진단모듈과 위치기반서비스 플랫폼을 설치해 렌터카가 특정지역에 진입하면 쿠폰이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커넥티드카 사업도 협력한다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

아시아나, 차세대 항공기 A350 7호기 도입

이달말 美 서부 3개 노선 투입
추가 도입으로 연내 10대 확보

아시아나항공은 2일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인 A350 7호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A350 7호기는 지난 1일 에어버스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 툴루즈에서 출발해 2일 오후 4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도입식은 한창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도입한 A350 항공기는 4월말부터 미주 서부 지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3개 장거리 노선과 ▲상하이(푸둥) ▲싱가포르 등 중장거리 노선에 새롭게 투입돼 매일



아시아나항공이 도입한 A350 7호기

/아시아나항공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호찌민 ▲광저우 등의 노선에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6대의 A350 항공기를 도입해 현재 인천~런던, 인천~뉴욕, 인천~하노이, 인천~오사카 등의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A350이 투입된 노선은 작년

한해 93만명이상이 탑승해 연평균 탑승률 80%를 상회하며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기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는 이번 7호기에 이어 4월 중순 8호기를 도입하고 하반기에 2대를 추가 도입, 총 10대의 A350 기단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A350은 ▲동급 중대형 항공기 대비 앞뒤 간격이 7~10cm 넓은 좌석 운영 ▲차세대 엔진 장착 및 공기역학적 설계로 연료효율성 25% 개선 ▲친환경 설계를 통한 소음과 탄소배출 25% 감소 ▲기내 습도 5% 향상, LED 조명 적용 등으로 쾌적한 기내 환경 제공 ▲국내 유일 기내 인터넷 서비스와 휴대전화 로밍서비스 제공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